

노인학습자의 변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서울시 노인 복지관 학습자의 개인특성, 음악활동 및 우울을 중심으로*

한 수 정**

본 연구는 노인학습자의 개인특성, 음악활동, 우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E 노인종합복지관의 음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학습자이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5월 말경부터 약 일주일 정도이며, 최종 분석대상은 총 127명이다.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학습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은 배우자 유무(있음)와 건강상태 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활동의 변인 중 음악공연 관람횟수 변인만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우울 변인은 중요한 변인으로써 그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노인 가족복지와 건강증진, 그리고 우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정책과제의 대상 및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노인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음악문화향유의 지원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대학, 노인시설 및 관련 교육기관, 복지관, 보건기관 등에서는 지역사회 참여와 교육활동 시간 활용 연계가 가능한 노인 맞춤형 매칭 프로그램 활성화가 요구되며, 정형화된 기관의 음악프로그램 차원을 벗어나 전 생애를 통한 평생교육 차원의 계속 교육에 동참하게 하여 노인의 긍정적 자아상 회복과 성공적인 노후 설계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 주제어: 노인학습자, 성공적 노화, 음악활동, 우울, 다중 회귀분석, 문화예술활동

차 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노인학습자의 성공적 노화			
2.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빈도분석	3. 측정도구	4. 자료분석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2.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2. 시사점	

* 이 논문은 한국음악교육학회 2018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I. 서론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안정된 삶의 영위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노년 시기의 성공적인 삶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8년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14.3%로써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20.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예측하고 있다. 통계청(2011)에 따르면 인구 평균수명이 2030년에는 81.9세, 2050년에는 86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노인의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은 자신의 주요문제에 관해 빈곤과 질병, 고독, 무위 등 4중고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다(김동배, 2008). 이러한 노인 문제에 대해 예방적인 관점에서 노인들 스스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성공적 노화의 측면은 강조되고 있다(안정심, 강임, 김윤정 2009).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높은 수준으로 노인들의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노인교육의 활성화와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양해져야 한다(Harris, 2007). 즉, 고령 인력의 제2의 인생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평생학습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성공적 노화는 1986년 미국 개최의 세계노년학회 연례회의에서 노화에 대한 관심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계기로 심리학계에서는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Charbonneau-Lyons 외(2002)는 사회적·가족적 관계와 내재적 가치, 재정적 관심, 성취 및 인지적 기능이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Baltes와 Baltes(1993)는 수명과 인지적 효능감,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적 유능성, 생산성, 통제감, 생활의 만족 정도가 성공적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노인들의 개인적 노화 정도는 다르나 특정 활동을 택하고 그 활동을 자신의 특성에 최적화하여 보상받을 때 성공적 노화를 경험한다고 한다. 즉, 노인의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인 건강과 사회적 만족감, 건강한 정신 등을 유지하는 성공적인 삶의 향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을 위한 교육활동은 중요하며, 긍정적·부정적 심리 요인의 증진과 해소, 안정된 정서 등 노후의 더 나은 생활의 영위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교육활동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으며(김민정, 2013),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노인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보다 참여한 노인의 경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박영숙, 2003). 즉, 성공적 노화는 노인 개인의 다양성과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자신의 상황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 사회 고유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노인의 교육에 관한 기대를 반영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17년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가 지목되었으며, 세부과제로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민 문화예술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건강한 노화는 노인이 질병과 장애에 따른 기능 장애를 극복하고, 최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늙는다는 것을 말한다(Busse, 1969). 노년기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여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의 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유희정, 2007). 즉, 노인의 안정적인 삶의 만족과 성공적 노화를 위해 경제 및 건강상태, 문화 및 사회활동의 경험과 참여는 중요하다.

노년의 시기에는 퇴직,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독립 및 출가, 친구의 죽음 등으로 인한 상실감의 경험으로 고독감,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우울이나 의존성, 내향성 등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한정란,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2005)에 따르면 노인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빈곤과 질병 및 장애, 고립, 역할의 상실, 사회적 유대 혹은 사회적 관계 악화 등으로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즉,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성공적 노화와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의 문제 및 요구 증가에 대한 관심과 해결책이 필요하며, 노화의 긍정적 수용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우울 관련 지원사업의 예로는 노인 상담센터의 ‘우울 자살예방 상담사업’이 있으며, 노인 자원봉사단 조직의 동년배 상담가와 우울 예방 지킴이 역할을 하는 ‘노년 행복 컨설턴트 사업’은 지역의 ‘노노케어’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양적 성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질적인 제고를 통해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문화예술교육 비전 제시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치매 노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추진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통합·융합 문화예술교육 추진 등 사업의 다각화를 계획하고 있다.

노인 문화프로그램 사업 공모는 문화예술교육 및 동아리 지원, 청년과의 협력 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등 지원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경연, 전시, 체험프로그램, 교육, 상담, 영화 상영 등의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 ‘2017 실버문화페스티벌’의 노인 종합축제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문체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진행하는 ‘청춘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여러 노인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들 수 있으며, 지방문화원에서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으로 노인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교육의 수준 및 환경, 기회의 제공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전문 예술 강사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나 개선점을 위한 연구 보고도 아직 부족하다.

그동안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가족관계, 사회적·경제적 문제 등 여러 주제의 연구(홍현방, 2005; 남석인 외, 2015; 한송이, 윤순영, 2001)는 계속되었으며, 노인의 문화예술 및 음악활동, 평생교육 정책 관련 연구(전명수, 2014; 민경훈, 2016; 윤소영, 2016), 노인의 우울과 관련된 연구(김동배, 손의성, 2005; 안미향, 김경운, 2012; 김재희, 김옥, 2014)도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노인학습자의 성공적 노화 관점에서 노인의 특성, 음악활동, 우울 등의 요인을 연계하여 다루지 않고 있어 이들 변인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습자의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에 관해 개인특성, 음악활동, 우울 등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고, 성공적 노화를 위한 효과적인 음악예술활동의 방안 모색을 위해 근거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습자의 개인특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학습자의 음악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노인학습자의 우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노인학습자의 성공적 노화

1) 성공적 노화의 조건

UN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부의 법률¹⁾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상 연금의 수혜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나 고용촉진법이나 국민연금법 수혜 등의 권고에서는 평균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기관의 등록은 일반적으로 60세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노인을 위한 평생학습은 적극

1) 노동부 법률, 제 8472호의 제 19조 정년(2008)

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므로 이를 통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욕구의 충족은 성공적인 노후를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Rowe와 Kahn(1998)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질병, 장애와 관련된 위험의 수준이 낮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유지와 적극적인 인생 참여 태도를 지닐 것 등 3가지 요소들을 요구하면서 이 특성들을 유지하는 능력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정의하였다. Havighurst(1977)는 지위나 역할의 상실이 뒤따르는 노년의 시기에 상실감과 적응에 대응해 가는 능력을 성공적 노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Rowe와 Kahn(1987)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던 노화의 인식에서 노력 및 환경의 적절한 통제를 통해 극복하고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는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모델로 그 관점을 전환하였으며, Leviton(1977)은 건강한 죽음의 수용을 위해 죽음 의식화를 가져오는 죽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미혜와 신경림(2005)에 따르면 성공적인 노후는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자녀의 성공을 통하여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인 삶 등 다차원적 요인들에 의해 구성되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홍현방과 최혜경(2003)은 성공적 노화는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삶의 의미와 목적감을 잃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심리발달과정이라고 하였다. 이현지와 송은희(2012)는 성공적인 노화는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보고하면서 남성노인은 삶의 의미와 시설 환경이 영향을 나타내며, 여성노인은 삶의 의미와 가족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하다고 제시하였다. 즉, 노인학습자의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은 성공적 노화에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주관적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측면의 건강을 반영하여 개인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지각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써(서연태, 정기천, 김춘중, 2013) 고령자의 건강상실로 인한 부정적 정서는 고령자의 노령에 대한 수용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김후경, 이순철, 오주석, 2007),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아통제감은 높아진다(김재희, 김옥, 2014). 그리고 배우자의 사랑, 친밀감, 지지, 부부 간 갈등 등은 노년기의 우울과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이선미, 김경신, 2002) 노인의 경제 상태, 노인교육참여 유무, 배우자 유무는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박영숙, 2003). 김경호와 김지훈(2008)은 노인 자신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지위에 관해 만족할수록 성공적 노화의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면서 노년기에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커지므로 부부 간의 친밀성, 애정, 의사소통, 상호 지원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지혜은과 박경숙의 연구(2018)에서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것이 전반적인 성공적 노화

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며, 결혼한 상태에 있는 유배우자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사별이나 미혼인 노인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권중돈, 조주연, 2000). 한국 노인 중에 일부는 부부가 오래 해로하거나 동반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공적 노화로 인식하기도 하였다(박경란, 이영숙, 2002). 그 외에도 남석인 외(2015)는 노인의 노화불안은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 국가 정책 사례로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독거노인 수호천사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노노케어사업’ 등이 있다. 즉,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가까이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노인의 노화불안은 심화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 현실적·대안적 차원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요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성공적 노화모델에 관한 기존의 연구(Rowe & Kahn, 1998)에서 건강상태는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 가장 선행적인 요소로서 성공적 노화의 기초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며, 노인이 된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여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해 노년기 자아를 활동적인 신체에 종속하는 활동이론에 기반하여 질병, 장애가 없고 인지적·신체적 기능이 높은 상태에서 삶의 관여를 위한 필요라고 보았을 때, 건강 수행을 통해 증진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가활동은 성공적인 노화를 촉진하는 역할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원형중, 김숙자, 2006). Litwin(2005)은 건강한 노인일수록 신체적 활동 능력이 있으며, 이는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주관적 건강이 좋다고 느낄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정도는 높게 나타났으며(전상남, 신학진, 2009), Cresnoe와 Elder(2002)는 현실적인 자신의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공적인 노화를 가장 잘 예언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상태는 성공적 노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바 있으며(김재중, 2008), 경제적인 안정은 노인의 다양한 삶의 활동기회를 높이므로 성공적인 노후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된다(Cresnoe & Elder, 2002). 정옥분 외(2008)는 경제적인 사회참여는 노인의 성공적인 노후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노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높여준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노인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주관적인 경제 및 건강상태, 배우자와의 지지 관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한송이, 윤순영, 2015),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노년 시기의 부부관계는 지지의 제공과 정서적 안녕감의 증진으로 성공적 노화를 예측한다는 연구(Antonucci & Akiyama, 1995)결과도 있다. 서울지역 60세 이상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성혜영, 조희선, 2005)의

경우에도 성별과 배우자 유무, 자녀동거, 학력,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고령화 시대의 문화역할 및 과제 연구(윤소영, 2016)에서는 여가활동 불만의 이유로 경제적 부담과 동반자의 부족함을 보고하면서 여가시설과 건강문제를 지적하였다.

한편, KEDI(2015a)의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따르면 노인세대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율은 문화예술 프로그램(54.6%), 인문교양(31.4%), 기초문해교육(1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의 평생학습 실태조사 개발 연구(KEDI, 2015b)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은퇴, 사회변화 적응, 건강관리, 관계유지, 생산적 여가 선용 등으로 제시하였다. 즉, 경제 및 건강상태, 가족관계가 양호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활동에 능동적인 고령의 노인학습자는 성공적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신체적·인지적 변화는 상황적 판단 및 대응 능력을 저하하며, 인지적 능력은 사회 계층적 경험과 관련이 있으므로 노인의 교육활동에 있어 개인의 정도와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문화예술과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은 노인이 더욱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동에 빈번하게 참여할수록 성공적으로 노화된다는 활동이론에 기초해 발달해 왔다(Atchlet, 2000). 20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²⁾ 보고에 따르면, 2014년에 비해 2016년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60대가 55.7%, 70세 이상은 39.4%로써 증가하는 추세였다. 노인교육을 통해 노인은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으며(McClusky, 1976), 학습에 참여하는 노인은 건강과 웰빙을 더욱 즐기고 사교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하므로(Dench & Regan, 2000) 음악을 포함한 문화예술 관람의 경험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의 직접 관람률은 2014년의 71.3%보다 7.0%p 증가한 78.3%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영화’가 73.3%로 가장 높았고, ‘대중음악/연예’ 14.6%, ‘연극’ 13.0%, ‘미술전시회’ 12.8%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은 전체 응답자 중 80% 이상이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사별로는 ‘영화’ 관람 의향률이 78.5%로 가장 높았고, ‘대중음악’ 23.5%, ‘연극’ 20.1%, ‘뮤지컬’ 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이 보고서는 2016년 9월~11월까지 국내 만 15세 이상의 10,7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의 결과를 집계·분석한 결과로 고령자 중심의 세부적인 조사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노인학습자의 연령대에서 60대는 ‘영화’ 53.4%, ‘전통예술’ 19.4%의 순이었으며, 70세 이상 역시 ‘영화’ 32.4%, ‘전통예술’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예술 행사 관람 시 동행자 면에서는 60대의 경우 ‘배우자’ 41.1%, ‘친구(동성친구)’ 29.0%의 순이었으며, 70세 이상의 경우 ‘친구(동성친구)’ 28.7%, ‘배우자’ 25.0%의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문화예술행사 별 관람률에서는 음악 분야의 장르(서양음악, 전통예술, 뮤지컬, 대중음악/연예) 구분에 따른 관람 실태에서 전통예술 관람률은 70세 이상의 관람률이 15.9%로 가장 높았고, 60대 12.5%, 50대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 3.6%를 차지해 가장 낮았다. 그 외 서양음악(클래식, 오페라, 서양악기 관련) 관람률은 15~19세의 관람률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3.1%, 70세 이상이 1.5%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뮤지컬 관람률은 20대의 관람률이 18.6%로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2.9%, 70세 이상이 1.0%로 가장 낮았다.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연예(방송 프로그램 등) 행사 관람률은 20대의 관람률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60대는 11.6%, 70세 이상이 9.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owe와 Kahn(1987)은 성공적 노화는 질병이 없고 심리적인 인지능력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종교 및 시민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 기관 등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0)에 따르면 산하 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은퇴 후 생애 설계 서비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사회공헌, 자원봉사, 재취업 등을 돕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 노인회의 노인교실이나 각 지자체의 복지관, 종교단체, 노인대학 등에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이나 교양, 여가, 사회활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음악활동을 지원하며, 문화부는 예술 강사의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등 부처 간 협력적인 음악활동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관련 연구(최보연, 2017)에서는 취약계층 중심 교육 비판에 관해 사회 문화예술교육 개별 사업의 노인 및 장애인의 교육 수혜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노인과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문화예술교육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취약계층 중심성’의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원 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진행하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유사하나 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상호 비교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여 유사한 공공 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및 차별화 전략이 수립되거나

관련 사업에 적용되지는 않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사회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만 강사 파견 방식이며, 기타 사업들은 예술 강사와 예술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복지기관 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예술 강사는 시설 담당자 및 참여자 특성, 교육환경 및 일정 등에 대해 협의 후 사업 취지에 맞추어 10개월 동안 연간 35회 차(1회 2시수, 총 70시수) 수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건강, 자율적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인 인생 참여, 자기수용, 타인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선행연구 고찰

1) 노인의 음악활동

Clair(1996)는 음악활동에 대해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과 상관없이 지루함을 없애주고 구조화된 시간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즐거움을 제공하는 표현의 수단으로 삶의 질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Havighurst(1963)는 활동이론을 성공적인 노화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자율성, 삶의 만족, 자기실현, 자기효능감, 자존감, 장수, 육체적 기능성, 장애 없음 등으로 제시하였다. Rowe와 Kahn(1997)은 활동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질병, 장애가 없고, 인지 및 신체적 기능이 높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삶의 참여를 강조한 바 있다. Atchley(1989)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 노년 시기의 사회적인 활동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Maier와 Klumb(2005)는 다양한 활동에서 비롯한 역할과 활동에 대한 애착 및 몰입 증대의 패턴이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한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건강한 노화와 활동적인 노화를 표방하였으며,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화적, 영적, 그리고 시민생활의 면에서도 지속적인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Hsu, 2007). 이처럼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기능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요소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노후 준비 정도와 준비 유형이 성공적 노화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2012)에서는 건강유지를 위한 활동을 할수록, 노후자금을 준비할수록, 사회 및 취미, 여가생활을 할수록 성공적 노화를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이 있고 사회참여가 많거나 여가 선용을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능의 저하 속도가 더디게

나타난 연구(이인수, 2012) 결과도 있다. 즉, 활동이론에 의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바탕으로 하여 노인의 음악적·사회적 활동의 참여가 높을수록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다양한 활동의 지속적 참여에 따른 역할 수행 및 성과는 긍정적인 노화의 인식태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영위를 위해 활발한 여가 및 사회문화활동 참여의 능동적 실행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노인의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위한 교육 활동 수행의 능동적·긍정적 태도의 강화는 노인의 자아효능감을 증진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여 성공적인 노화의 수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음악활동은 노인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60대의 노인은 건강을 위해서 놀이문화를 하는 세대이므로 외부의 모임을 통해 활동적이고 유익한 음악활동을 한다(권순호, 2001). 민경훈(2016)은 노인 음악교육의 주요 과제에 관해 다양한 노인 음악프로그램 확대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음악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노인 음악교육 전문 인력 지원 및 음악 강사의 전문성 향상, 노인 음악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공간의 확충, 기부 확산 및 협의체 운영, 우수사례 확산 및 전국 노인 음악 축제 개최 등으로 제시하였다. 음악감상은 노인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의 감소, 심상적 치료 및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며(이승희, 2006), 시설 및 재가 노인의 음악 정서적 반응에 관한 연구(이주미, 2003)에서는 요양 및 경로시설 노인의 노래활동 부르기 참여가 일상생활에 동기를 갖게 하고 자신의 감정 및 동료 간 의사소통의 욕구 표현 등 정서적 변화에 있어 효과성이 있음을 밝혔다. 권순호(2009)는 독일의 경우, 지역 노인들을 위한 음악활동으로 마을합창단 활동을 통한 노인 합창 경연대회로 실버 계층의 활발한 음악참여 장려와 지원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한국 노인의 음악활동에 있어 지역 학교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조하였다. 노인의 건강노화에 음악활동이 미치는 영향 연구(한가영, 김영선, 오영심, 2016)에서는 음악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낮은 수준의 우울감과 높은 수준의 건강상태, 병원 방문 횟수에서 낮은 빈도를 나타내어 음악활동의 참여는 노인들의 건강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건강한 노인의 치유적 음악은 프로그램에서 발달시킨 음악기술들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자기표현을 만들어 주는 기회를 부여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을 구조화하는 데 음악을 사용하며, 음악기술 발달을 통해 인지적 자극은 향상된다(Clair & Memmott, 2009). 한정란(2003)은 음악의 창작활동이나 악기 및 노래를 통한 발성으로 내면적인 발달과 표현 욕구를 외부로 표현하게 하면서 개인 갈등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며, 심리적·정서적 요소를 통

한 조화로운 해결로 가족이나 이웃과의 갈등을 완화하여 정신구조의 재편성 등의 심리적 치료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Aldridge(1994)에 의하면 음악은 노인에게 있어 즐거움 중의 하나로 음악으로의 몰입은 신체 및 정신의 기능을 향상하게 한다.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음악활동은 노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며(박정희, 이드보라, 2013), 음악활동을 통한 가족 및 친구의 일체감, 모임활동 등은 상호적 유대감의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지역사회의 음악 소모임 활동이나 공연 체험 프로그램의 능동적인 참여는 중요하다. 음악과 운동을 이용한 노인의 노래 부르는 것은 우울 정도를 낮추고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며 노인의 건강증진과 치매예방에도 효과적인 중재 방법이 된다(정영주, 민순, 2001). 노인을 위한 유리드믹스 음악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이국희, 2016)에서는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하고 성공적인 노화로서 촉매제 역할을 유도하므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능동적 참여의 음악활동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민요를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활동은 독거노인의 우울감소, 자아존중감의 향상에도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박경호, 김현정, 2017)가 있으며, 음악은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하게 한다는 연구(Hanser, 1990) 결과도 있다. 즉, 노인은 지역사회 합창 그룹 활동, 음악공연 관람 등의 음악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인의 기호 및 취향에 따라 쉽게 접할 수 있고 함께 즐기며 감정 발현의 통로를 위한 음악활동 참여의 능동적 실행은 중요하며, 지속적 참여는 정서적 문제의 치유와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성을 보일 것이다.

한편,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전명수, 2014)에서는 참여동기 중 활동지향적 동기와 학습지향적 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정적영향을 나타냈으며, 교육만족 정도는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쳤다. 즉, 적극적인 학습 참여동기의 부여는 음악활동의 행동 표현,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의 증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수용, 부정적 감정과 우울감의 해소, 자존감의 회복 및 증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나타내어 성공적 노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음악활동을 기반으로 한 노인학습자의 교육프로그램은 노인에게 필요한 정서적 자원을 제공하고 긍정적 자아인식의 향상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음악 공연 관람 횟수, 음악활동 참여동기, 교육 참여기간, 음악활동 프로그램의 만족 정도는 노인학습자의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 노인의 문화예술활동

국내외 노인의 음악 관련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 사례로, 미국 국립예술기금(NEA)의 노화와 예술과 관련된 2015년 보고서³⁾에서는 은퇴자들의 예술참여 장애요인은 허약한 건강상태와 육체적 장애로 인한 전 시 및 공연장소 이동의 어려움이라고 하였으며, 공연 관람에 있어 함께 관람하는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점을 우려로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관한 2006년 연구⁴⁾에서는 참여 고령자들이 실제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어 고령자들의 독립성 유지와 의존성 저하 등 강력한 긍정적인 중재효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그 외 Washington DC의 Encore Creativity 조직⁵⁾의 경우, 55세 이상 노인에게 전문적인 예술가의 우수한 교육과 접근이 용이한 예술적 환경을 제공하여 합창교육을 통한 음악의 즐거움을 부여한 바 있다.

한편, 영국문화예술위원회의 매직 미(Magic me) 프로그램⁶⁾은 1989년부터 런던에서 9세 이상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자 간 함께하는 예술프로그램이다. 이는 두 연령층의 상호작용을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자선 단체 활동을 하며, 고독에 대한 조치를 포함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독일의 비스바덴 뮤직 프라이스 50+(Musicpreis 50+) 조직⁷⁾은 2007년 독일음악위원회 주최로 설립되었으며, 세대를 뛰어넘는 프로젝트, 음악프로그램 50+, 치료 음악프로그램 등 다양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층의 능동적인 문화행사 참여 고취와 일반 시민들에게 고령층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내의 음악 관련 노인 문화예술활동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아르떼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복지관에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연극, 무용, 음악, 미술, 사진 등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노인학습자의 문화향유를 돕고 있다. 또한,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 등 문화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문화예술교육인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체부의 2016년 ‘어르신 재능나눔사업’은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나타난 다양한 노인 문제의

3)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5). When going gets tough: Barriers and motivations affecting arts attendance.

4)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06). The creativity and aging study the impact of professionally conducted cultural programs on older adults.

5) 앙코르 크리에이티브 사이트(<http://www.encorecreativity.org>)

6) 매직 미 사이트(<http://magicme.co.uk/current-projects>)

7) 뮤직 프라이스 50+ 사이트(<https://www.musikrat.de/musikpolitik/musizieren-50/musikpreis-50>)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는 신노년문화운동인 노인의 ‘시니어코리아’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 노인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에서는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향유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잠재적 노인의 문화활동가를 양성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문화나눔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외 전주 금암복지관 협력 사업인 취타대는 60세 전후의 20여 명 구성으로 대상은 악기를 다루었던 경험이 있는 고령자이다. 프로그램 활동은 주 2회 연습하며, 공연으로 연계되어 배우는 즐거움과 일거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긍정적 변화를 부여하였다. 이와 관련해 윤소영(2016)은 문화여가활동 참여와 동시에 소일거리의 부여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는 성취감과 역할의 재정립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관계망과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인한 성취감 및 상실감 해소에 관한 유의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림 1]은 음악 관련 노인 문화예술활동의 국내 사례 사진이다.



[그림 1] 음악 관련 노인 문화예술활동의 국내 사례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6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의 노인문화복지 프로그램 수행 현황의 5개 분야 중 연극공연과 음악이 인기가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로 담당 예술 강사의 교육활동 및 컨설팅도 병행하였는데 그 예로는 노인문화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청춘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연극, 무용, 음악, 미술, 사진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 자신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발표하는 등 축제를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능동적 참여는 부족하고 거주 지역에 따른 간극이 존재하며, 건강과 경제

8) 출처 : <https://www.google.com>, <http://www.mcst.go.kr>,
<http://kasilver.org>, <http://www.jbnews.com>.

사정 등 여러 한계점에 대해 보완 시책이 필요함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노인학습자의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음악감상 등 신체활동을 겸한 음악 학습활동은 우울감의 감소, 건강증진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음악활동을 통한 활발한 여가 및 사회 활동의 지속적 참여는 구성원 상호 간의 공감대 형성과 음악의 미적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자신감의 회복과 긍정적인 미래의 노후 설계를 준비하게 하여 성공적 노화에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 성공적 노화의 장애요인 - 우울

우울증은 슬픔, 공허감, 짜증스러운 기분 등 그에 수반되는 신체적, 인지적인 증상으로 인해 개인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부적응 증상을 의미한다(권석만, 2013).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고령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역할과 가족구조 등의 변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기능의 쇠퇴와 부정적인 심리 상황에 놓이게 되어 역할 상실 및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느끼게 되는 상실감, 박탈감, 소외감 등으로 불안과 우울감이 발생하게 되며, 건강한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60대 이후 자녀의 출가,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 및 지위의 상실로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는 고령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체감의 상실, 유대관계의 단절, 배우자의 사별 등 소외감과 고독감, 자존감의 저하를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노인의 수동성, 내향성, 경직성의 완화와 우울의 해소를 위해, 그리고 증가한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취미생활이나 여가 및 교육활동은 필요하며, 지속적인 개인적·사회적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 제공은 중요하다.

노년기의 우울은 우울 자체의 상태뿐만 아니라 가족력과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 및 생물학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다. Brown(1996)에 따르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노인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적응력이 약하고, 많은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으며, 소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 또한, 우울증이 심한 경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McCoy 외(2000)는 노인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신과 주변의 가까운 타인에게서 죽음 현저성의 점진적 증가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심리적 위협의 증가는 그동안 불안완충기제 역할을 해 온 근위와 원위방어기제의 기능 저하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절망과 우울, 비통함으로 침전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심각한 생활사건, 사별, 친척 및 친구의 죽음, 다툼이나 이사 등을 경험하고 난 후 1년 이내에 우울증을 경험할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배우자, 자녀와의 사별은 가장 중요한 단일 생활사건으로 보고(기백석, 1999) 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부(2014)의 노인실태조사에서

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외로움, 배우자의 사망 등 여러 이유로 자살을 생각하나 무엇보다 우울로 인한 자살사고 및 행동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노인의 우울증은 성인과 달리 우울 증상에 수반된 불안이나 신체증상, 건강염려증, 집중력 및 기억력의 장애 등을 먼저 호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성치매 등의 임상 양상으로도 표현된다(기백석, 1999). 노년의 시기에는 신체적 건강의 악화, 직장에서의 은퇴 준비, 배우자 등의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소외감과 무망감, 고독감, 자아존중감 저하 등 심리적·사회적 상실을 겪게 되므로 심리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져 우울감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Baltes & Mayer, 1999).

노인의 우울은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은 낮아지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 연구(박용순, 송진영, 2012) 결과가 있다. 윤진(1983)에 따르면 우울은 배우자와의 사별, 질병, 실직, 은퇴, 경제적 여건, 자녀와의 별거 등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노화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상실, 신체적 질병, 죄의식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노인의 우울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으며(허준수, 조승호 2016), 우울은 인지적 기능의 손상과 정신적인 기능의 저하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하므로(오승진, 류경미, 2011)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는 노인학습자의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우울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보다는 여성이, 저소득층에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김동배, 손의성, 2005). 또한, 고령 집단일수록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를 인식하며, 우울감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다(황민영 외, 2018). 그밖에도 노인의 우울은 삶의 만족을 저하하며,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허준수, 유수현, 2002),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가 높은 노인의 경우, 우울은 낮게 나타난 연구(여인숙, 김충경, 2005) 결과도 있다. 이처럼 노년 시기의 우울감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노인의 우울은 무력감, 절망감을 포함하고 있기에 죽음불안이나 자살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노인의 스트레스 감소와 죽음불안, 고독사, 자살 등의 예방을 위한 대안적 우울 방지프로그램의 실행이 필요하다. 제시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우울은 노인학습자의 성공적 노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나타낼 것으로 여겨진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E 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교육 음악활동 프로그램⁹⁾에 참여하는 만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학습자이다. 자료의 수집 기간은 2018년 5월 말경부터 약 일주일 정도이며, 설문 시 참여 의사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본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질문지를 일대일로 읽어주고 설명해주면서 답을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총 170부를 배부하여 134부를 회수하였으며,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한 최종 연구의 대상은 총 127명이다. 연구의 적정 표본 수 판단 분석 시 사용되는 적정 표본의 크기를 계산을 위해 G-power 3.1.3 program을 사용하였다. 효과의 크기는 .20, 검정력은 .80, 유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표본의 수는 98명이었다. 즉, 본 연구의 표본 수는 127명으로서 적절하였다.

2. 빈도분석

다음 제시한 <표 1>은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특성의 빈도분석 결과이다. 노인학습자의 성별은 여성학습자가 89명으로 70.1%의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 9) 여기서 음악활동 프로그램은 하모니카, 기타, 동요교실, 풍물, 가곡, 민요, 팝송 등을 포함한다. E 기관의 음악활동 프로그램은 단계별 또는 가능한 경우 합반으로 실기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음악활동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다. 악보 및 교재는 공동으로 구입하거나 강사의 재량으로 보조 자료를 활용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포트폴리오 형태로 사용하고 관리하였다. 서울시 E구에는 노인복지관으로 시립 1곳, 구립 6곳, 총 7개 기관이 있다. E 기관의 경우, 매년 초 신청기간에 사회교육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다양한 음악 관련 활동 프로그램(하모니카, 기타, 동요교실, 풍물, 가곡, 민요, 팝송, 색소폰, 가요교실, 일본어 노래)을 해당 년도에 무상 참여가 가능하며, 일부 동아리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실비를 지불하기도 한다. 풍물이나 난타 수업에서 사용하는 악기는 기관에서 무상으로 대여하며, 하모니카, 기타, 색소폰 등은 개인이 악기를 구비하여 수업에 참여하였다. 음악활동의 성과는 ‘아버이 날’, ‘노인의 날’ 등의 행사나 절기에 따른 구 단위 축제 행사 참여 등 정기적, 비정기적 공연 참여를 통해 성과를 발표, 공유하였다. 복지관 내 공동체 활동으로는 악기별 음악동아리, 예술봉사단, 합창그룹 등이 있으며, 음악수업의 교안, 교육내용, 커리큘럼은 강사의 재량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E 기관의 경우, 2018년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사진과 연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아카데미’는 후반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 시행할 예정이며, 그 동안의 성과로는 서예, 그림, 손뜨개, 사진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표한 바 있다.

연령은 만 70세 이상~80세 미만인 81명의 63.8%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음악프로그램 참여 유형 구분에서는 하모니카 프로그램이 43명의 33.9%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49명의 38.6%를 차지하였다. 가구 월 소득은 50만원 미만이 40명의 31.5%, 200만원 이상이 31명의 24.4%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종교는 개신교가 47명의 37.0%, 불교가 34명의 26.8%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배우자 유무는 '있음'이 79명의 62.2%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배우자와 둘이 산다.'가 64명의 50.4%이며, 건강상태는 보통인 경우가 63명의 49.6%를 차지하였다. 선호하는 음악유형은 대중가요가 42명의 33.1%를 차지하였으며, 그다음 순위로는 클래식 음악이 29명의 22.8%로 나타났다. 음악활동의 참여기간은 3년 이상이 40명의 31.5%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음악공연의 관람 횟수는 1~2회가 48명의 37.8%로 가장 높았다. 음악활동 수업만족은 '보통이다'와 '만족한다.'가 49명의 38.6%로써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음악활동 참여동기는 '음악을 배우는 즐거움을 위해서'가 70명의 5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 빈도분석

	구분	빈도(%)
성별	남	38(29.9)
	여	89(70.1)
연령	만 60세 이상~70세 미만	29(22.8)
	만 70세 이상~80세 미만	81(63.8)
	만 80세 이상~90세 미만	17(13.4)
음악프로그램 참여 유형	하모니카	43(33.9)
	기타	17(13.4)
	동요교실	15(11.8)
	풍물	21(16.5)
	가곡	14(11.0)
	민요	9(7.1)
	팝송	8(6.3)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12(9.4)
	중학교 졸업	19(15.0)
	고등학교 졸업	49(38.6)
	전문대학 졸업	15(11.8)
	4년제 대학교 졸업	28(22.0)
	대학원 석사 졸업	4(3.1)

구분		빈도(%)
가구 월 소득	50만원 미만	40(31.5)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15.7)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0(15.7)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6(12.6)
	200만원 이상	31(24.4)
종교	개신교	47(37.0)
	가톨릭	32(25.2)
	불교	34(26.8)
	없음	12(9.4)
	기타	2(1.6)
배우자 유무	있음	79(62.2)
	없음	48(37.8)
가족구성	혼자 산다.	36(28.3)
	배우자와 둘이 산다.	64(50.4)
	결혼한 자녀와 산다.	10(7.9)
	미혼인 자녀와 산다.	11(8.7)
	기타	6(4.7)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3(2.4)
	나쁘다.	23(18.1)
	보통이다.	63(49.6)
	좋다.	31(24.4)
	매우 좋다.	7(5.5)
선호하는 음악유형	대중가요	42(33.1)
	국악	14(11.0)
	종교음악	21(16.5)
	클래식	29(22.8)
	팝송	14(11.0)
	기타	7(5.5)
음악활동 참여기간	6개월 미만	14(1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3(18.1)
	1년 이상~2년 미만	34(26.8)
	2년 이상~3년 미만	16(12.6)
	3년 이상	40(31.5)
음악공연 관람횟수	없음	31(24.4)
	1~2회	48(37.8)
	3~4회	23(18.1)
	5~6회	6(4.7)
	7~8회	5(3.9)
	9회 이상	14(11.0)

구분		빈도(%)
음악활동 수업만족	매우 불만족 한다.	5(3.9)
	불만족 한다.	6(4.7)
	보통이다.	49(38.6)
	만족한다.	49(38.6)
	매우 만족한다.	18(14.2)
음악활동 참여동기	대인관계와 원만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19(15.0)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해서	20(15.7)
	음악을 배우는 즐거움을 위해서	70(55.1)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14(11.0)
	기타	4(3.1)
전체		127(100.0)

3. 측정도구

1) 음악활동 척도

노인학습자의 음악활동 측정을 위해 지난 1년간 음악 관련 공연 관람 횟수, 음악활동 참여기간, 음악활동 참여동기, 음악활동 수업만족 등 모두 4개의 문항을 본 연구의 대상에게 적절하게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음악활동 수업만족의 측정은 ‘매우 불만족 한다.’의 1점~‘매우 만족한다.’의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2) 우울 척도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노인학습자의 우울 변인 측정을 위해 Sheikh와 Yesavage(1986)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한국판 단축형 노인우울척도(GDSSF-K)를 기백석(1996)이 번안, 강진숙(2017)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측정문항은 ‘아니다.’는 0점, ‘그렇다.’는 1점으로 0점~15점의 총 15문항 구성이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는 .7 이상이 되면 적절하다고 보며(김기원, 2016),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도출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791로 나타나 대체로 적절하였다.

3) 성공적 노화 척도

성공적 노화 변인의 측정을 위해 김동배(2008)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한 김미란(2017)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총 28문항으로 측정도구 척도는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7 이상을 적정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나타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947로써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도구의 변인 설명

변인	설명	척도와 신뢰도
성별	노인학습자의 남녀 구분	만 60세~87세
가구 월 소득	①②③④⑤200만원 이상	더미 (200만원 이상=1)
배우자 유무	배우자의 유무 여부 ①있음②	더미(있음=1)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 정도 ①매우 나쁘다. ②나쁘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⑤매우 좋다.	1점~5점
음악공연 관람횟수	지난 1년간 음악 관련 공연 관람 횟수 ①전혀 없음 ②1~2회 ③3~4회 ④5~6회 ⑤7~8회 ⑥9회 이상	1점~6점
음악활동 참여기간	음악활동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①6개월 미만, ②6개월 이상~1년 미만, ③1년 이상~2년 미만, ④2년 이상~3년 미만, ⑤3년 이상	1점~5점
음악활동 참여동기	음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 ①대인관계와 원만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②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해서, ③음악을 배우는 즐거움을 위해서, ④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⑤	더미 1(대인관계와 원만한 사회활동을 위해서=1) 더미 2(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해서=1) 더미 3(음악을 배우는 즐거움을 위해서=1) 더미 4(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1)
음악활동 수업만족	참여하는 음악활동의 수업 만족도 정도 ①매우 불만족 한다. ②불만족 한다. ③보통이다. ④만족한다. ⑤매우 만족한다.	1점~5점
우울	현재 생활의 만족, 최근의 활동량 및 의욕 정도, 헛된 삶 및 지루한 삶에 대한 느낌, 기분의 상쾌함 및 불안감, 마음의 즐거움, 절망적인 느낌, 집에서	0점~15점 '그렇다'의 총 개수 합산 [긍정문항 1, 5, 7,

	머무르고 싶은 마음, 기억력 및 타인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교, 살아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 자신의 쓸모없음, 기억력 인식, 희망감 (총 15문항)	11, 13번 역산 Cronbach's α 계수 .791
성공적 노화	신체적 건강(2문항), 자율적 삶(9문항), 자기완성 지향(6문항), 적극적 인생 참여(5문항), 자기수용(3문항), 타인 수용(3문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종속변인, 총 28문항)	Likert형 척도 (1점~5점) Cronbach's α 계수 .947 [합산]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Program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값을 통해 회귀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노인학습자의 개인특성 변인(성별, 가구 월 소득,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음악활동 변인(음악공연 관람횟수, 음악활동 참여기간, 음악활동 참여동기, 음악활동 수업만족), 우울 변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기술통계치와 상관계수는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회귀분석에 필요한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3>은 노인학습자의 개인특성(성별, 가구 월 소득,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음악활동(음악공연 관람횟수, 음악활동 참여기간, 음악활동 참여동기, 음악활동 수업만족), 우울, 성공적 노화 변인의 측정변인 기술통계값을 제시한 것으로 회귀분석에 투입할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은 2를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은 7을 넘지 않아 주요 변인들이 단변량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Curran, West & Finch, 1996)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왜도와 첨도의 값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기술통계값

(N=127)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성별	1.00	2.00	1.70	.45	-.88	-1.23
가구 월 소득	1.00	5.00	2.82	1.58	.18	-1.51
배우자 유무	1.00	3.00	1.38	.50	.66	-1.11
건강상태	1.00	5.00	3.12	.85	.06	.09
음악공연 관람횟수	1.00	6.00	2.59	1.54	1.10	.22
음악활동 참여기간	1.00	5.00	3.35	1.37	-.18	-1.21
음악활동 참여동기	1.00	5.00	2.76	.95	-.22	-.40
음악활동 수업만족	1.00	5.00	3.54	.93	-.51	.57
우울	.00	13.00	3.37	3.10	1.03	.56
성공적 노화	1.79	4.86	3.59	.64	-.63	.51

다음의 <표 4>에서는 노인학습자의 우울과 성공적 노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상관계수의 확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상관계수 유의성은 .3 이상이면 두 변수 간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고, .5 이상이면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안광호, 임병호, 2013). 분석 결과, 우울과 성공적 노화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414로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변인 간 상관관계

(N=127)

변인	우울	성공적 노화
우울	1.000	-
성공적 노화	-.414(**)	1.000

** $p < .01$

2.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습자의 개인특성, 음악활동, 우울 측정변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¹⁰⁾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와 기본 가정인 다중공선성의 확인을 위해 공차 한계와 VIF 값을 확인하

였다. 공차는 1에 접근할수록, VIF 값은 최대 10.0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계수, 2007). 이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노인학습자의 성별, 가구 월 소득, 배우자의 유무, 건강상태 등의 개인특성 변인, 음악공연 관람횟수, 음악활동 참여기간, 음악활동의 참여동기, 음악활동 수업만족 등의 음악활동 변인, 우울 변인이 노인학습자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제시한 <표 5>와 같다.

<표 5> 성공적 노화 모형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

(N=127)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차	VIF
		B	표준 오차	β			
상수		2.817	.415		6.782***		
성별	남자(더미=1)	-.115	.114	-.081	-1.003	.805	1.242
가구 월 소득	200만원 이상(더미=1)	-.184	.121	-.123	-1.529	.822	1.21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더미=1)	.322	.111	.242	2.911**	.767	1.304
건강상태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	.256	.062	.338	4.124***	.791	1.264
음악공연 관람횟수	음악 관련 공연 관람횟수	.089	.033	.213	2.703**	.859	1.164
음악활동 참여기간	음악활동 수업 참여기간	-.019	.037	-.040	-.506	.861	1.162
음악활동 참여동기	대인관계 및 원만한 사회활동을 위해서(더미=1)	-.098	.307	-.054	-.319	.184	5.426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더미=1)	-.064	.297	-.036	-.215	.189	5.296
	음악을 배우는 즐거움 때문에(더미=1)	-.149	.285	-.115	-.523	.110	9.099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더미=1)	-.101	.309	-.049	-.326	.235	4.261
음악활동 수업만족	음악활동의 수업만족 정도	.011	.054	.016	.201	.872	1.147
우울	우울감 정도	-.068	.018	-.328	-3.841***	.728	1.374
F 6.175***		R ² .394		Adj. R ² .330			

* $p < .05$, ** $p < .01$, *** $p < .001$

1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중 회귀분석의 회귀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y_i = a + \beta_1 D_1 + \beta_2 D_2 + \beta_3 D_3 + \beta_4 x_{1i} + \beta_5 x_{2i} + \beta_6 x_{3i} + \beta_7 D_4 + \beta_8 D_5 + \beta_9 D_6 + \beta_{10} D_7 + \beta_{11} x_{4i} + \beta_{12} x_{5i} + e_i$$

(a =회귀식의 절편(intercept), β =기울기(slope)로 회귀계수, x_i =독립변수, $D_1, \sim D_7$ =더미 변수, e_i =오류항)

성공적 노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F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F=6.175$, $p<.001$ 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는 종속변수의 분산 중 몇 %가 독립변수에 의한 설명량인가에 관한 지표로써 $R^2=.394$ 로 나타나 성공적 노화에 관해 투입된 변인들이 노인학습자의 종속변인인 성공적 노화에 대해 39.4%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노인학습자의 배우자 유무(있음)는 성공적 노화에 있어 $\beta=.242(t=2.911)$ 로써 $p<.01$ 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리고 건강상태는 $\beta=.338(t=4.124)$ 로써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음악공연 관람 횟수는 $\beta=.213(t=2.703)$ 으로 $p<.01$ 수준에서, 우울은 $\beta=-.328(t=-3.841)$ 로써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반면, 성공적 노화에 대해 성별(남자), 가구 월 소득(200만원 이상), 음악활동 참여기간, 음악활동 참여동기(대인관계와 원만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해서, 음악을 배우는 즐거움을 위해서,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음악활동 수업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노인학습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이 성공적인 노화를 높이며,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높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음악 관련 공연의 관람 횟수가 많을수록 노인학습자의 성공적 노화에 효과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울의 정도는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부적 효과를 나타내어 우울 변인은 부정적인 효과의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1) 개인특성

(1) 배우자

노인학습자의 개인특성인 성별(남자), 가구 월 소득(200만원 이상), 배우자 유무(있음), 건강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4개의 독립변인 중 배우자 유무(있음)와 건강상태 변인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은 전반적인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난 선행연구(Antonucci & Akiyama, 1995; 지혜은, 박경숙, 2018)의

견해를 지지한다. 이에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있어 배우자와 함께 하는 삶은 중요하며, 길어진 노년 시기를 더 의미 있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함께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 스스로 가족에게 보살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배우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건강과 배려심을 갖추어야 한다. 본연의 역할이 상실된 자에서 회복 가능한 자원과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가족의 복지와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 수행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부교육과 상담 서비스가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는 대화의 문제, 정서적 상실감, 고독감 등에 있어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양질의 독거노인 지지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노인시설 및 교육기관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간 교류와 규칙적 활동 및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의 지속을 돕고, 노인 상호 간 돌봄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배우자의 역할에 관한 대안적 방안은 한국문화의 상황적 맥락과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노인학습자 개인의 내적·외적 요인과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가족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역사회 및 정부의 연대를 통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건강

분석 결과에서 노인학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양호할수록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결과는 건강은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이며(Littwin, 2005), 주관적 건강은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성공적 노화는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전상남, 신학진, 2009)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에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협적인 장애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과 대책의 실행이 필요하며, 복지관과 보건소 기관 간 연계적 교육프로그램 활동을 적용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 자신의 노화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수용태도로 심리적 안정과 더 나은 통찰력을 키움으로써 사고의 편견과 부정적 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문화체육행사와 건강증진교육을 확장하여 노인의 질병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신체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용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에 동참하게 해야 한다. 노인의 건강과 문제 예방, 가족-사회 간 상호통합을 위해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서는 노인교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교육

을 제공해야 한다. 노화 과정의 긍정적 수용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 마련은 중요하므로 노인에 대한 이해와 가족화합 및 세대 간 교류를 위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 시행과 건강증진 및 노후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 성공적 노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음악활동과 예술활동

분석결과, 음악활동 변인(음악공연 관람횟수, 음악활동 참여기간, 음악활동 참여동기, 음악활동 수업만족) 중 음악공연 관람횟수가 노인학습자의 성공적인 노화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은 건강을 위해 활동적인 외부모임을 하며, 음악활동이 유익함을 강조한 연구(권순호, 2001)의 견해와 노인의 음악공연 관람의 참여를 통해서, 그리고 음악 관련 활동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성공적 노화와 삶의 질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들(Hanser, 1990; Clair & Memmott, 2009; 이국희, 2016)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노인학습자의 음악공연 관람 경험이 많을수록 성공적 노화가 높게 나타났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외부 활동 중심의 음악 관련 행사와 다양한 공연의 체험으로 노인의 예술적 소양 함양을 위한 경험적 음악학습활동의 실천이 강조된다. 이는 단순한 소모임 활동이나 취미활동의 형태라도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의 형태로 발현되어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문화복지기관에서는 단기적 음악프로그램, 행사 또는 기관 차원의 여가 및 동아리 활동의 범주에서 벗어나 노인교육 전문가와 복지 및 보건 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해 다채로운 음악교육활동의 경험을 함께 도와야 한다. 또한, 노인 음악문화기관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을 기반한 법적·제도적 개정도 필요하다. 실버세대의 음악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음악예술 관련 노인 담당 교육기관은 노인학습자의 외부 예술 공간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하며, 정부는 음악바우처, 문화나눔누리 제도 등 국가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 세대 내 형평성 있는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노인학습자의 더 나은 음악관람 학습활동을 위해서는 기관-강사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음악학습의 장애요인과 사전 교육정보 등을 공유해야 하며, 노인의 특성 요구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노인 전문 음악 강사의 복지관 지정 배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노인학습자가 인생 회고와 깊은 자기성찰을 통해 노후의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면서 음악활동가의 리더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인기관과 예술기관은 긴밀히 연계, 협력하여 지역

의 인프라 구축과 음악활동 가치를 재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학습자의 학습과정에서 정기적 평가, 설문, 인터뷰 등을 실행하여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하고, 참여하는 전통예술음악, 클래식, 뮤지컬, 대중적 음악 등 관람 취향을 분류하여 구체적인 음악활동 공연관람 소비 형태와 참여 현상을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음악활동 참여가 가능한 비교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양호한 도시 거주 노인학습자라 할 수 있다. 이에 농촌지역 및 시설 거주 노인, 사별 노인, 저소득 및 재가 노인, 장애인, 다문화 및 새터민 노인 등 소외된 취약계층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도 유익한 음악활동 정보를 상시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이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음악적 소양을 나누고 공연 관람에 동행해 주는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교육지원에서도 노인 수요자를 중심으로 참여자 수혜 대상 비율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과 시설에 전문 강사나 교육지원단체가 직접 찾아가는 노인 맞춤형 음악 관람 활동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학습의 권리를 누리는 평생교육적 차원의 음악활동을 통해 교육기관 간 정보 교류와 견학, 방문 관람의 기회를 늘려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버문화 페스티벌 및 경연대회, 청춘제 문화복지 프로그램, 실버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음악활동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바람직한 노후 준비 및 적응능력을 성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서적인 치유를 동반한 실질적인 노년기 수용 학습은 노인학습자의 자아실현과 자존감 및 가족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며, 노인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인하여 가족 및 동료 상호 간의 이해와 소통 및 화합의 기회로 직면하는 생활 문제의 갈등 해소와 관리에 유익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학습자는 음악예술활동의 향유로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독립된 사회적 인적 자원으로서 받은 혜택을 다시 나눔 하도록 해야 한다. 음악학습복지 생태계로 음악교육을 받은 노인학습자가 다시 음악그룹봉사나 학습을 지원하는 음악재능기부자로서 생산적이고 자생적인 음악활동의 주체자가 되어 음악문화향유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인 음악실습 교육의 수행으로 건강한 노인-취약계층의 노인 간 음악재능을 나눔 하도록 하고, 보조 교사 및 시니어 음악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음악의 수요자에서 공급자로서 사회적 인력의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즉, 노인학습자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 구성원으로서 마을 및 사회의 음악일자리 사업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실버 세대의 정기적인 음악복지 축제 개최와 지속적인 참여, 음악문화시설의 할인제도 확대,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한 교육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온·오프라

인을 활용한 노인 음악 전문 강사 자격 취득 및 고등 학력보완의 도전을 권면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 외에도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한 노인 부부프로그램과 가족 및 세대, 동료 간의 융합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독거 및 재가 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우, 젊은 세대들의 찾아가는 음악연주봉사로 소통의 장 마련과 정서적 위로를 더하여 노인의 긍정적 노화 수용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3) 우울

우울 변인은 성공적 노화 변인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우울은 삶의 만족을 저하하며,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허준수, 유수현, 2002)의 견해와 우울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에 부적 영향을 나타낸 연구(박용순, 송진영, 2012), 그리고 우울은 인지적 기능의 손상과 정신적인 기능의 저하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하므로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오승진, 류경미, 2011)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즉, 우울은 노인학습자의 성공적 노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우울감의 완화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교육과 보건 복지 연계의 다각도 차원의 방법을 적용한 치유적 융합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이승희, 2006; 윤소영, 2016;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06)에서 노인의 음악활동은 건강증진 및 우울,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삶의 의욕 고취에 도움을 주므로 노인학습자의 활기차고 가치 있는 삶의 영위를 위해 우울감소와 음악활동을 병행한 차별성 있는 음악활동을 제안한다. 또한, 고령 세대의 사회적 고립과 노화 수용 및 적응의 문제, 건강상태 등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상황을 고려한 우울감 해소에 유익한 매칭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복지관, 노인 시설, 노인 교육기관 등 기관 간의 교류를 통해서도 동료 노인들과의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울 및 고독감 등 정서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기적 의료 검진과 사후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 그리고 노인의 우울 발생 원인과 문제, 유형의 구분에 따른 즉각적인 치료와 우울 위험군의 상시적인 진료 서비스가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우울 관련 예방 봉사활동 및 상담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 내 이웃과의 공동체 네트워크망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복지 및 건강관리 시설에서 수행 가능한 우울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노인의 의료 검진 및 기관 이동 시 교통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노인 기관의 건강프로

그램이나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관리 대상 노인의 우울관리와 예방 역시 중요하므로 찾아가는 이동형 의료 서비스와 노인 전문 상담가의 파견이 상시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시사점

1) 지역사회 연계 및 평생학습 차원의 음악교육환경 구축

노년 시기의 음악공연 관람활동의 욕구 충족 및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중요하다. 문화예술 기반 시설의 적극적인 개방 및 활용으로 고령자의 자아실현 및 공동체 의식의 가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 차원에서 벗어나 평생학습 차원의 노인 세대 음악예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노인학습자의 음악 학습활동 수료 후 음악 나눔 활동가로서, 동아리 활동 재능 리더로서 일자리 및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경험적·예술적 기능 함양과 잠재된 음악표현능력을 발현시켜 지역사회 전문성 있는 음악 일자리 사업 참여에 장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학습자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 개인 및 가족, 공동체, 단체 음악활동 등에 따른 상호적 관계와 차이를 고려하여 심리적·사회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음악교육 환경 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 새로운 실버세대를 위한 다양한 음악문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급변하는 가족구조의 문제나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족 중심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노인학습자의 기호에 따라 음악 교수 활용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인 학습자의 음악학습 선 경험 및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음악활동의 수행과 노인 음악교육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여 교수법 개발과 전문 연수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학습자의 친화형 콘텐츠를 운영하여 노인과 젊은 세대 간 상호교류로 경로효친사상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지속적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통합적인 사회기능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의 음악자원 활용에 있어 기관 간 편차가 존재하므로 지역 중심의 정책체계와 교육 및 생활권 내 환경적 변화에 적합한 노인음악교육활동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농산어촌, 임대주택, 교정시설, 다문화, 새터민 등 소외계층의 노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 행사의 순회적 활동을 위해 관할 자치센터 및 기관에서는 안락한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음악교육활동의 기회를 확장해야 한다.

노인교육의 어려움에 있어 노인기관 시설의 노후 및 협소한 공간, 운영 재정의 부족, 정보 및 홍보 전달 체계의 문제, 고정화된 음악프로그램, 노인 특성을 잘 이해하는 노인교육 전문 강사의 부재, 지역사회 문화예술기관의 연계 미확보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기관, 종교 및 시민단체, 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의 균등한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적·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2)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음악교육 지원 및 인식변화의 중요성

예술 강사 지원과 강사 배치에 있어 학교 음악문화 및 교과과정과 차별화된 커리큘럼 및 교육방법을 노인의 생애 단계별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교육주체들 간의 협업을 통해 음악학습공동체, 지역별 편차, 부처별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연계하여 교차 수업 및 과정 배치에 있어 교육 대상이 가진 노인의 특수성을 섬세히 배려하는 접근성과 전문성이 수반 되어야 한다. 또한, 강사의 교육환경 정비와 경력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업무배치와 활동 역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별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그 밖에도 음악을 접목한 다양한 학계 간 통합프로그램의 수요 및 공급을 위해 교육 단체와 시설 간 관련 정보의 습득 및 공유는 중요하다.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공모사업의 진행을 통해 개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식이므로 교육단체의 안정적인 교육운영 환경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계층의 상이한 특수성을 감안하고 교육 대상을 관리하는 데 있어 단체기관과 수혜기관 간, 각 부처 간 MOU 체결로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의 평생교육실태조사 보고서(2015)에서 ‘기초문화학습 참여’는 노인학습자가 참여하는 학습활동 중 3순위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력 미만 노인학습자들의 학습 및 수혜 여부와 관련 정보를 전달 시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고안하여 음악활동의 유익함이 전달되어야 한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음악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교육의 서비스에 있어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노인학습자의 자율성에 따른 음악예술활동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노인학습자의 음악문화향유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노인복지관 학습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중소도시, 읍면부 등의 지역과 다양한 기관 유형으로 대상을 확대

하고 교육 상황, 학습단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둘째, 음악프로그램 비참여 노인, 비활동적 영역의 음악프로그램 참여자, 소외계층 노인과의 차별화된 비교 연구가 필요하며, 복지관 외 요양기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 다양한 기관의 노인학습자들을 추가, 비교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울 변인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중요하므로 여타의 변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우울을 매개 또는 조절 변수로 투입하여 효과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노인의 가족 구성, 관계 및 지지 유형에 따라 음악교과 외 타 학계의 문화예술활동을 접목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를 연계하여 계속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숙 (2017).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불안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 기백석 (1996).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5(2), 298-307.
- _____ (1999). 노인우울증. **노인병**, 3(3), 61-71.
- 김경호, 김지훈 (2008). 삶의 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유배우자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2), 87-106.
- 김계수 (2007).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기원 (2016). **사회복지조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동배 (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211-231.
- 김동배, 손의성 (2005). 한국노인의 우울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노년학**, 25(4), 167-187.
- 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2012). 노인의 과거 노후 준비정도와 준비유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58, 325-352.
- 김미란 (2017).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활동이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김미혜, 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1), 71-87.
- 김민정 (2013).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평생교육의 역할에 관한 연구. **평생학습사회**, 9(2), 23-50.
- 김재중 (2008).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김재희, 김욱 (2014). 노인의 노화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통제감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4), 233-260.
- 김윤정 외 (2016).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후경, 이순철, 오주석 (2007). 고령자의 상실감과 자아통합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2), 17-32.
-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2), 62-76.

-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순호 (2001). **놀이문화로서의 음악활동**. 서울: 음악과 문화.
- _____. (2009). 노인들의 놀이 문화로서의 음악 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소고. **한국 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44, 29-53.
- 남석인, 김준표, 이다지, 신지민 (2015).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0, 169-195.
- 민경훈 (2016). 안드라고지 관점에서 본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노인 음악활동의 의미 탐구. **예술교육연구**, 14(4), 195-215.
- 박경란, 이영숙 (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박경호, 김현정 (2017). 민요 중심 음악치료가 독거노인의 우울 감소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인문과학연구**, 53, 261-290.
- 박영숙 (2003). 노인교육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1, 99-121.
- 박용순, 송진영 (2012). 만성질환 남성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교육**, 17, 79-96.
- 박정희, 이드보라 (2013). 독거노인의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트로트와 민요를 이용한 노래회상 음악치료의 비교 연구. **노인복지연구**, 61, 319-338.
- 보건복지부 (2010).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 _____. (2014). **2014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서연태, 정기천, 김춘중 (2013). 장애노인의 운동 참여수준과 주관적 건강 평가의 관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2(4), 589-597.
- 성혜영, 조희선 (2005).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 모델. **한국노년학**, 26(1), 105-123.
- 안광호, 임병호 (2013). **SPSS를 활용한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 안미향, 김경운 (2012). 복지관 방문노인의 삶의 질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8), 3544-3551.
- 안정심, 강인, 김윤정 (2009).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225-245.
- 여인숙, 김충경 (2005). 노년기 죽음불안과 사회적 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7(1), 75-101.
- 오승진, 류경미 (2011). 집단미술치료가 만성정신질환자의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2), 128-144.

- 유희정 (2007). 농촌 사별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경험 연구. **한국노년학**, 27(3), 617-634.
- 윤소영 (2016).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 :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국관광문화연구원.
- 윤진 (1983). 발달단계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 : 노년기의 정심병리와 우울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 5-15.
- 이국희 (2016). 유리드믹스를 활용한 노인의 음악활동 연구 및 효과. **국내학술심포지엄**, 95-115.
- 이선미, 김경신 (2002).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와 우울 및 관련 변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39-157.
- 이승희 (2006). 신경학적 음악치료, 정현주.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 이인수 (2012). **21세기 노인복지론**. 서울: 대왕사.
- 이주미 (2003).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음악에 대한 정서적 반응 비교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5(1), 83-102.
- 이현지, 송은희 (2012). 요양시설노인이 인식하는 삶의 의미와 가족지지, 시설환경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8, 233-252.
- 원형중, 김숙자 (2006).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여가정책 : 활성화 방안. **체육과학연구**, 17(4), 179-192.
- 전명수 (2014).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5), 235-246.
- 전상남, 신학진 (2009). 주관적 건강 및 노인차별경험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9(4), 1383-1396.
- 정옥분, 김동배, 정순화, 손화희 (2008).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정영주, 민순 (2001). 운동과 음악을 이용한 노래부르기가 노인의 생리적 변화, 인지기능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3(2), 35-50.
- 지혜은, 박경숙 (2018). 성공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비교. **한국사회보장학회**, 34(2), 209-237.
- 최보연 (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 방향**.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통계청 (2011). **2011 고령자 통계**. 통계청.
- 한가영, 김영선, 오영심 (2016). 음악활동이 노인의 건강노화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6(3), 363-392.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송이, 윤순녕 (201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족 지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6(4), 372-379.
- 한정란 (2008).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허준수, 유수현 (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7-35.
- 허준수, 조승호 (2016).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 673-691.
- 홍현방 (2005).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 203-235.
- 홍현방, 최혜경 (2003). 성공적인 노화 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145-154.
- 황민영, 정순돌, 김주현 (2018). 연령주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 우울감 간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37(1), 65-103.
- Aldridge, D. (1994). Alzheimer's disease: rhythm, timing and music as therapy, *Biomedical and Pharmacotherapy*, 48(7), 275 - 281.
- Antonucci, T. C., and Akiyama, H. (1995). Convoys of social relations: Family and friendships within a life span context. In R. Blieszner & V. H. Bedford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family* (pp.355-371).
- Atchley, R. C. (2000).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9th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Thomson Learning.
- Baltes, P. B., and Mayer, K. U. (1999). *The berlin aging study, aging from 70 to 100*.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1996). *The social processes of aging and old age*. Upper Saddle River : Prentice Hill.
- Busse, E. W. (1969). Theories of aging. In: E. W. Busse & E. Pfeiffer (Eds.), *Behavior and adaptation in later life* (pp.11-32). Boston : Little, Brown.
- Charbonneau-Lyons, D. L., Mosher-Ashley, P. M., and Stanford-Pollock, M. (2002). Opinions of college students and independent-living adults regarding successful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8(10), 823-834.

- Clair, A. A. (1996). *Therapeutic uses of music with older adults*. Baltimore, MD: Health Professions Press.
- Clair, A., and Memmott, J. (2009). Therapeutic uses of music with older adults. Health Professions Press. 노인음악치료연구회 역, **노인음악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Crosnoe, R., and Elder Jr., G. H. (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309-328.
- Curran, P. J., West, S., and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 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nch, S., and Regan, J. (2000). *Learning in later life: Motivation and impact*, Research report RR183,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London.
- Fisher, H. J., and Specht, D. K. (1999). Successful aging and creativity later in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13, 457-472.
- Hanser, S. B. (1990). A music therapy strategy for depressed older adults in the communit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9(3), 283-198.
- Harris, D. K. (2007). *The sociology of aging*.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Havighurst, R. J. (1963). Successful aging. In Williams, R., Tibbitts, C. and Donahue, W. (eds), *Process of aging*. New York: Atherton Press.
- _____ (1977).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Let's learn about aging: a book of reading*, Barry J. R. & Wingrove, C. R.(eds.). New York: Schenkman Publishing Co., 139-148.
- Hsu, H. (2007). Exploring elderly people's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eing in Taiwan. *Ageing & Society*, 27, 87 - 102.
- KEDI (2015a). **평생교육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15b). **고령자 통계**. 한국교육개발원
- Leviton, D. (1977). Death education. In H. Fefel (Ed.), *New meaning of death*, pp.254-272. New York: McGraw-Hill.
- Litwin, H. (2005). Correlates of successful aging : Are they universal?.

-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1(4), 313-333.
- Lord, T. R., and Garner J. E. (1993). Effects of music on Alzheimer patients. *Percept Mot Skills*, 76(2), 451-455.
- Maier, H., and Klumb, P. L. (2005). Social participation and survival at older ages: is the effect driven by activity content or context?. *European Journal of Ageing*, 2(1), 31-39.
- McClusky, H. (1976). What research says about adult learning potential and teaching older adults. In R. M. Smith (Ed.), *Adult learning: Issues and innovations*. DeKalb, IL: ERIC Clearinghouse in career education, department of secondary and adult education,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 McCoy, S. K., Pyszczynski, T., Solomon, S., and Greenberg, J. (2000). Transcending the self : A terror management perspective on successful aging. In A. Tomer (Ed.), *Series in death, dying, and bereavement. Death attitudes and the older adult: Theories, concepts, and applications* (pp.37-63). New York: Brunner-Routledge.
- Rowe, J. W., and Kahn, R. L. (1987). Human aging : Usual and successful. *Science*, 237(4811), 143-9.
- _____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433-440.
- _____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 권유경, 최혜경 역. **성공적인 노화**, 서울: 학지사.
- Sheikh, J. I., and Yesavage, J. A. (1986).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Clinical Gerontology*, 5, 165-173.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Factors
Elderly Learners on Successful Aging:
Focu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Musical Activities and Depression of
Learners at a Senior Welfare Center
in Seoul**

Han, Su-Jeong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lderly learners' personal characteristics, musical activities and depression on successful aging. The subjects were male and female elderly learners, aged 60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a musical activity program of E Senior Welfare Service Center located in Seoul. The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for a period of about a week in late May, 2018, and a total of 127 people were selected as final subjects for analysis. The SPSS 18.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factors in this study was verifi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ffecting elderly learners' successful aging were presence of a spouse(yes) and subjective health condition. Second, among five variables related to musical activities, only "number of visits to musical performanc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lderly learners' successful aging. Third, the depression variable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hav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uccessful aging.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ver more people in policy tasks and increase budgets for the elderly's family welfare, health improvement and depression management, while making an effort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to enjoy musical culture, tailored to different life stages. Institutes, including, universities, facilities and education institutes for the elderly, welfare centers and health agencies, are required to facilitate elderly-tailored matching programs that can operate in connection with community participation and education activities. These programs should depart from stereotypical music programs offered by institutes and encourage the elderly to engage in continuing education as lifelong education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so that the elderly can regain a positive self-image and successfully plan for later years.

Key words: elderly learners, musical activities, depression, successful ag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t & culture activities

투고일: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12일(10월 17일), 게재확정일: 11월 2일